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미국 대신 세계 경제 이끄는 중국
- ◇ (그래프)-절하폭 깊었던 원화, 되돌림 기세도 강력..리스크 지표들 속속 원위치
- ◇ (초점)-은행 예대율 맞추기 '레이싱'에 흔들리는 CD 금리...당국 안정 조치 필요성 제기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칠레 산티에이고에서 바리케이드가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한 시민이 가면을 쓰고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조르게 실바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57.5	0.7%	-3.6%	-4.1%	유로	1.1016	-1.3%	-3.9%	-4.4%
100엔 대비	1,060.1	1.5%	-4.2%	-6.9%	엔	109.27	-1.0%	0.3%	2.8%
유로 대비	1,276.6	1.9%	0.0%	0.2%	위안	6.9788	0.9%	-1.5%	-5.3%
위안 대비	165.59	-0.1%	-2.3%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7,681.24	1.2%	18.7%	-5.6%
코스피	2,137.23	1.8%	4.7%	-17.3%	나스닥	8,475.31	1.1%	27.7%	-3.9%
코스닥	664.60	0.3%	-1.6%	-15.4%	S&P500	3,093.08	0.9%	23.4%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34.50	1.8%	12.0%	-16.2%
국고채 3Y	1.518%	5.1bp	-29.9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644%	5.2bp	-24.0bp	-45.9bp	미국채 2Y	1.680%	12.6bp	-81.8bp	60.7bp
국고채 10Y	1.803%	7.1bp	-14.5bp	-52.1bp	미국채 10Y	1.945%	23.1bp	-74.6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7.24	1.9%	26.1%	-24.8%	한국 5Y	26.25	-1.58	-11.81	-13.74
금(현물)	1,458.41	-3.6%	13.7%	-1.5%	일본 5Y	20.50	0.35	-1.29	-3.34
TR상품지수	2,377.84	0.4%	0.3%	0.0%	중국 5Y	35.50	-3.40	-30.97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11 일(월)>

- 특이 일정 없음

### <12 일(화)>

- 한은, 10 월 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10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13 일(수)>

- 통계청, 10 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 한은, 9 월 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KDI 경제 전망(12:00)

### <14 일(목)>

- 한은, 10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15 일(금)>

- 기재부, 11 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11 일(월)>

- 일본, 10 월 은행대출 (8:50)
- 일본, 9 월 경상수지 (8:50)
- 일본, 9 월 기계주문 (8:50)
- 중국, 10 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11~18 일)
- 중국, 10 월 위안화 신규대출 (11~18 일)
- 중국, 10 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1~19 일)

### <12 일(화)>

- 미국, 10 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13 일(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일본, 10 월 기업상품가격지수 (8:50)
- 유로존, 9 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 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22:30)

### <14 일(목)>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1:00)
- 미국, 10 월 연방예산 (4:00)
- 일본, 3 분기 GDP (8:50)
- 중국, 10 월 도시지역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10 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10 월 소매판매 (11:00)
- 유로존, 3 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0 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2:30)

### <15 일(금)>

- 중국, 10 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9 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9 월 무역수지 (19:00)
- 미국, 11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0 월 수출입물가 (22:30)
- 미국, 10 월 소매판매 (22:30)
- 미국, 10 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9 월 기업재고 (자정)
- 미국, 9 월 소매재고 수정치 (자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외환시장>

- 지난주까지 6 주 연속 하락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는 추가 하락보다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50-1170 원이다.
- 미-중 무역 협상 진척 여부가 여전히 원화 움직임에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진척이 없을 경우 달러/원 환율은 1150 원대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반등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 12 월로 최종 협상 일정이 연기된 채 아직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계적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 이에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이래저래 1150 원대에서 바닥을 다질 공산이 커 보인다.
- 한편 이번 주 주목되는 일정으로는 14 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다. 다만,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 월 파월 의장이 당분간 금리 동결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파월 의장은 연설은 기존 통화정책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14 일에는 중국 10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및 고정투자가, 15 일에는 미국 10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 등이 나온다.

###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지난주 금리 상단을 세 번이나 두드리고도 문을 열지 못한 만큼 숏 재료보다는 롱 재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협상 관련 막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점진적으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7 일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일단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

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그 가능성을 가격에 상당히 반영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지난 주말에 확인된 것처럼 채권시장은 현재 CD 금리 등 단기물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CD 금리, 이자율스왑(IRS) 시장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채권 매수세도 한결 여유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주부터 기획재정부의 바이백이 시작되는 만큼 단기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은 13 일에 10 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같은 날 금통위원 오찬간담회에서는 임지원 금통위원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10 월 금통위에서 깜짝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내놓았던 임 위원장의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15 일에 10 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칼럼)-미국 대신 세계 경제 이끄는 중국**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프 1: <https://tmsnr.rs/2PSujKz>

▶ 그래프 2: <https://tmsnr.rs/32kV6lc>

런던 (로이터) - 중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작은 경제국들을 실어나르며 미국 대신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중국은 전세계 경제성장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의 2 배 이상이다.

IMF는 중국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도 세계 성장률에 비슷한 정도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5 개국은 2024년까지 전 세계 성장률에 절반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이들 5 개국의 생산량과 소득 증가 없이 세계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향후 몇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갈등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이에 더 잘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 기관차 이론

1970~1990년대에는 미국을 세계 경제의 기관차라고 특징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더 작은 국가들과의 무역과 금융 관계를 통해 글로벌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했다.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문구들이 상황을 대변하기도 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세계 시장의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열차를 끄는 유일한 기관차 역할을 할만큼 충분히 빠르거나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그리고 다른 주요 신흥국들은 이제 세계 경제를 끄는 더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문구는 "중국이 재채기를 할 때" 또는 "신흥시장이 재채기를 할 때"로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

2014/15년과 2018/19년 나타난 중국의 경기 후퇴는 그 기간 동안 세계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이 되었으며,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 주기의 중심에 머물게 될 것이다.

◆ 세계 산업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치는 특히 중요하다. 급증하는 중산층이 석유, 자동차, 항공 여행, 관광 등의 수요가 커지는 경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소득 증가가 개인 자동차와 장거리 항공 운송의 소비 증가를 촉진하는 S 곡선의 중간 부분에 있다.

중국의 경제 주기는 2014/15년, 2018/19년 원유 소비 감소를 일으키며 당시의 유가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인도와 함께 중국은 세계 자동차 제조업 침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타격을 입혔으며 업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하락한 유가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 그 밖의 많은 지역에 걸쳐 수익과 정부 지출, 기업 투자에 타격을 주었다.

이들 국가의 주기적 경제 둔화로 인한 유가 부진은 미국의 원유 생산 지역인 서부 텍사스 등에서도 수입, 투자, 고용을 저해했다.

◆ 경제전

2018년 초 이후로 미국은 경제력과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중국 경제를 저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관세를 비롯해 시장 접근, 투자, 기업 소유권, 안보 블랙리스트, 제재, 형사 처벌 등의 비관세 장벽은 정부 전반의 노력 하에 이뤄졌다.

공개적으로 표명된 이러한 목표는 작게는 중국이 보조금, 정부 주도 대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장 접근을 비롯한 산업 정책을 고치도록 해 왔다.

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는 적어도 중국의 정치 구조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 될 때까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현재의 미국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세계 경제 기관차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전은 2018/19년 구체화된 세계 경제의 전반적 둔화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서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방법은 없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세계 성장과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분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중국의 경제 정책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도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둔화를 치를만한 대가였다.

하지만 미국과 의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 이들은 다시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는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침체를 피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적어도 당분간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휴전 이후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협상되고 있는 합의는 오직 관세, 지식재산권, 농업 및 에너지 제품 무역 등 제한적인 이슈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 접근,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공급망 및 군사-경제력의 상대적 균형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긴장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미국 선거 이후 휴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적어도 일부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휴전은 미국과 중국 경제 간의 연결을 부분적으로 끊고, 중국 외 다른 국가로 글로벌 가치 체인을 돌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양국 정부의 일부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양국간 새로운 경제 갈등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 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지배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미국이 어떻게 다시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미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지 알기는 어렵다.

더 넓게 보아도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양국간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가 향후 5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없다.

양국은 건설적으로 공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이룰 수 없다면, 저조한 세계 성장세는 더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될 것이다.

#### **(그래프)-유독 절하폭 깊었던 원화, 되돌림 기세도 강력..리스크 지표들 속속 원위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올해 2분기를 시발점으로 약세 일변도를 보였던 원화는 4분기를 변곡점 삼아 급격하게 되돌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보복전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초만 해도 무역 분쟁의 가장 취약한 통화로 지목된 원화는 한국 수출 경기 악화와 1분기 GDP 역성장 충격, 외국인 주식 투자자 배당 수요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

제 등 펀더멘털 우려까지 더해지며 약세 압력을 대폭 키웠다.

이에 지난 8월 원화 가치는 2016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절하폭은 아시아 주요 통화 중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하지만 무역 분쟁 완화 시그널이 커진 10월을 기점으로 원화는 방향을 선회했고,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한 현재 원화의 되돌림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화 관련 지표들 또한 급격하게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다.



(달러/원 환율,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리버설(R/R) 콜오버 1개월은 8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콜 옵션 프리미엄이 낮은 것으로 달러/원 환율 상승 기대는 작다는 의미이다.



(달러/원 1M R/R,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은 간밤 27bp까지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5월에는 40bp 근처로 반등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미-중 무역 합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또한 안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물 CDS 프리미엄,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기 원화 절하폭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반작용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엔/원 환율은 4개월 만의 최저, 그리고 위안/원 환율은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각각 급락했다.



(엔/원, 위안(CNH)/원 환율,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모멘텀이 한층 완화되면서 원화가 적정 레벨을 탐색하는 기간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던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외환딜러는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일 때도 과도했지만 반대 흐름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환율이 전고점 대비 이미 크게 하락한 만큼 나온 호재에 대



한 반영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점)-은행 예대율 맞추기 '레이싱'에 흔들리는 CD 금리...당국 안정 조치 필요성 제기**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내년 1월 새로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CD 발행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은행 예대율 맞추기 레이싱에 CD 금리 직격탄**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개월 CD 금리는 지난 7일 1.52%에 최종 고시됐다.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여파로 1.55%에서 1.36%로 하락한 지 20여 일 만에 16bp나 반등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CD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은행 자금부 관계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금융당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가계·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차등화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가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승하는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아진다.

새 예대율 규정에 따라 예대율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거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오르면서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초점은 예금 유치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4분기 들어 은행들의 '비율 맞추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금금리도 빠르게 올라간 이유다. 최근 법인의 1년 예금금리는 1.78%까지 올라왔다. CD 금리가 1.5%대인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CD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어려워졌다.

문제는 은행들의 CD 발행 수요는 크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1%까지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예수금의 1%까지 꼭 채워 CD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7일에는 우리은행이 6개월 CD를 민간평가사 금리보다 3bp 높은 수준에 모집했지만 수요 부진 속에 600억원 발행하는 데 그쳤다.

8일 오전엔 신한은행이 3개월, 6개월, 12개월 CD 발행을 시도했지만 수요 부진에 선순위채권 발행으로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A은행 자금운용역은 "내년 1월부터 신예대율이 도입되는데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영향을 받고, 기존의 가계대출 가중치 늘어나는 것 역시 커버해야 한다"며 "예금도 늘려야 해서 연말까지 레이싱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CD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같이 뛰게 됐다"고 말했다.

#### **▲CD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커져..당국 안정화 조치 기대감도**

CD 금리 상승과 단기물 시장의 불안감이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D 금리 상승이 연말 수급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최근 금리 상승에 일정 부분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까지 감안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B은행 자금부장은 "은행 자금부 사람들은 비율 보는 사람이지만 금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일부 은행들이 먼저 비율 맞추겠다고 나서면 모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시장은 조금 안정되다가 다시 무너지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보다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통안채 발행 축소나 여유로운 지급준비금 운용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시기 조정안 등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금융위원회가 신예대출 도입 시기를 한 분기만이라도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은행 자금운용역은 "신예대출 규제의 경우 벌써 2년 전부터 금융당국이 이야기한 것이라 이제 와서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금리 변동폭이 과도하게 커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분명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